

■ 광주 첫 가야금 앙상블 'Green 나래' 창단

25현 맑은 음색 나래를 펴다

요즘 휴대폰 컬러링으로 심심하게 들게 되는 게 가야금이나 해금 등 국악기로 연주되는 음악들이다. 다양한 국악 그룹 등이 결성되고, 음반 발매 등도 활발해지면서 생겨난 현상이다. 특히 가야금 앙상블의 연주곡은 광고 등에도 사용되며 많이 대중화 되었다.

광주에도 가야금 앙상블이 탄생, 반가움을 주고 있다. 지난 20일 밤 전남대 예술대학교 국악 연습실에서는 이제 막 첫발을 댄 가야금 앙상블 'Green 나래' 단원들이 구슬땀을 흘리고 있었다. 팝송으로 익숙한 감미로운 'Try to remember'를 가야금으로 듣는 맛은 정말 색달랐다. 이어 연주된 국악곡 '초소의 봄'은 꼭 하프 연주를 듣는 듯한 화려한 연주가 돋보이는 곡이었다.

'Green 나래' 단원들은 조선옥(33·전주시립국악단), 이정숙(32·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 홍윤진(31·전남대 대학원 재학), 김한아(30·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 강지민(28·전남대 대학원 재학), 송정림(28·전남대 대학원 재학)씨 등 모두 6명. 모두 전남대 국악과 출신으로 광주가야금연주단원으로도 활동중인 이들은 2~3년전부터 '함께' 연주하는 모임을 꾸렸다.

그러다 최근 문화관광부의 지원을 받는 '우리 가락 우리 마당' 행사에 참여하게 되면서 매주 금요일 만나 본격적인 연습을 시작했고 지난 6월 첫 공연을 가졌다.

'Green 나래'가 사용하는 가야금은 정통 12줄 가야금이 아닌, 25현 가야금. 5음계를 갖고 있는 12현 가야금이 한 옥타브 반의 음정을 낼 수 있는 데 반해 25현 가야금은 7음계에 2옥타브 반에 이르는 음

전남대 국악과 출신 젊은 연주자 팝·클래식 등 자유자재로 연주 8월4일·9월8일 야외공연 무대

역을 소화할 수 있어 그만큼 다양한 음악을 연주할 수 있다. 또 전통 가야금보다 맑은 음색을 자랑하는 것도 특징.

'Green 나래'는 우선 8월 4일과 9월 8일 오후 6시 광주 쌍암공원 무대에서 공연할 예정이며 현재 광주시 동구청이 진행하고 있는 야외 공연 무대에도 서기 위해 조율중이다.

'Green 나래'는 퓨전 국악과 전통 국악을 7대 3의 비율로 연주하고 있다. 쌍암공

원 무대가 가족 단위 관객이 많이 찾는 곳이다 보니 아무래도 사람들에게 좀 더 친숙한 곡들을 들려주고 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레퍼토리는 재즈 'Fly to the moon', 팝송 'Let it be', 클래식 음악 파졸리니의 '리베르 탱고', 파헬벨의 '캐논', '하울의 움직이는 성', '아기공룡 둘리' '날아라 슈퍼보드', '은하 철도 999' 등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고 있다.

이제 첫발을 댄 'Green 나래'의 입장에서 5집 음반을 낸 '사계'나 '속명가야금 연주단' 등 확고히 자리를 잡은 앙상블들이 많이 부럽다. 탄탄한 기복사와 함께 공연을 진행하고 정규 앨범도 내는 등 당당히 자라매감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건이 힘들기는 하지만 저희도 열심히 해야죠. 올 한해 동안은 다양한 음악들을 연주하고 공부하며 'Green 나래'의 정체성을 찾는 데 목적을 두고 있어요. 퓨전 곡 뿐 아니라 다양한 전통 음악들을 통해 저희들이 사랑하는 가야금의 매력을 전하고 싶습니다.'

리더 조선옥씨는 내년에는 정식 창단 공연을 열고 더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싶다고 말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에서 처음 등장한 가야금 앙상블 'Green 나래'는 전통 국악 뿐 아니라 팝송, 클래식 등 다양한 음악을 25현 가야금으로 들려줄 예정이다.

'금호아시아나 솔로이스츠' 10월 창단 연주회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은 재단이 후원하는 '금호아시아나 솔로이스츠'의 창단 연주회를 오는 10월 18일 금호아트홀에서 열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금호아시아나솔로이스츠는 피아니스트 김선욱, 손열음, 바이올리니스트 권혁주, 이우라 등 20여명으로 구성, 다양한 실내악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한편 재단은 내년 8월까지 1년간 금호아시아나솔로이스츠를 통해 신곡을 발표할 기회를 부여받게 되는 금호아시아나솔로이스츠의 상임 작곡가를 뽑기 위해 오는 8월 17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한다. 문의 02-6303-1930.

/연합뉴스

'올해 한국의 대표 작가' 황석영

인터넷 서점 YES24 설문 ... '차세대 작가는 은희경 내달 12~14일 전남서 작가와 함께하는 문학캠프

네티즌은 올해 한국의 대표 작가로 황석영과 은희경을 꼽았다. 인터넷 서점 YES24(www.yes24.com)는 지난 2일부터 22일까지 실시한 '노벨문학상에 추천하고 싶은 국내 작가' 설문을 실시한 결과, 소설가 황석영씨를 선택한 네티즌이 전체 5만8천641명 중 1만9천766명(23.6%)으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그 뒤를 조세희(9천499명·10.8%), 이문열(6천520명·7.8%), 최인훈(5천905명·7.1%), 고은(5천866명·7.0%), 신경림(5천542명·6.6%), 이정준(5천386명·6.4%), 김지하(3천788명·4.5%)씨 등이 이

었다. '차세대 우리 작가'를 묻는 질문에는 전체의 24.6%인 1만9천918명이 소설가 은희경씨를 꼽았으며 전경린(4천630명·5.7%), 김명희(4천196명·5.2%), 성석제(3천810명·5.2%), 박현욱(3천710명·4.6%), 박민규(3천114명·3.8%), 정이현(3천37명·3.8%), 윤대녕(2천654명·3.3%)씨 순인 것으로 조사됐다. 살아있다면 다음 작품이 기대되는 작가를 묻는 '다시 만나는 작고 작가' 투표에서는 소설가 이상이 전체의 8.9%인 7천710표를 얻어 1위를 차지했다. 운동주

(7천516명·8.7%), 김소월(4천920명·5.7%) 등이 그 뒤를 이었다. YES24는 이번에 대표작가로 선정된 황석영, 은희경씨와 함께 하는 문학캠프를 다음달 12~14일까지 전남 일원에서 열 예정이다. 캠프는 문학 작품의 배경이 된 보성 차밭, 화순 운주사, 해남 땅끝마을, 대흥사, 변산반도 등을 돌며 진행된다. 구체적인 일정과 참가자 발표는 오는 30일 YES24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2004년 박경리·김훈 ▲2005년 조정래·공지영 ▲2006년 박완서·신경숙(이상 우리시대 대표작가·차세대 우리작가 순) 등이 지난 1~3회 행사에서 한국의 대표작가로 뽑힌 바 있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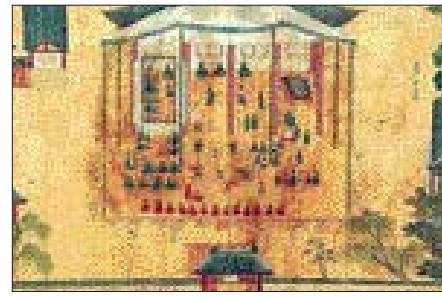
옛 사람들, 그 삶의 흔적을 보다

고흥 남포미술관 내달 12일까지 민화展... '기노사연도' 등 85점

조선시대 화원이나 사대부들이 즐겼던 그림과 대비되는 민화는 대표적인 서민 예술이다. 민화는 뛰어난 조형미를 담고 있지 않지만 서민들의 애환과 예술관을 엿볼 수 있는 가장 한국적인 그림으로 통한다.

고흥 남포미술관(관장 광형수)이 민화의 모든 장르를 아우르는 '옛 사람들, 그 삶의 흔적을 보다'전을 24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는 조선시대 궁중의 연회장면을 그린 기노사연도(보물 638호)를 비롯해 산수 병풍도, 금강산도 등 모두 85점이 출품됐다. 중국 소상강의 춘하추동을 묘사한 소상팔경도(병풍)와 자손의 번창과 가정의 화목을 염원하는 어희도, 영모도, 봉황도 등이 전시된다. 조선시대 북방지역의 대표적인 양식의 회화도(펼쳐놓은 호랑이 가죽을 그린 그림)를 비롯



'기노사연도'

문자도, 선승과 고사의 일화를 그림으로 옮긴 고사인물도 등 민화의 모든 양식이 선보인다. 광형수 관장은 "민중의 삶이 담겨있는 민화를 통해 조상들의 삶의 흔적을 보고 느끼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문의 061-832-0003.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 여성아카데미

25일 '부부 클리닉'... 김병후씨 초청

광주시가 주최하는 제3회 여성 아카데미가 25일 오후 1시30분 광주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의 초대 손님인 부부·가족문제 전문상담센터 '부부 클리닉' 후를 운영하시는 김병후(사진) 대표.

정신과 전문의로 매주 금요일 KBS-1TV '아침마당' 고정 패널로 출연하고 있는 김 대표의 이날 행사에서 '부부 클리닉 사랑과 전쟁'이라는 주제로 강연한다.

강연 전에는 노래교실이 운영되며 이날 강의 내용은 27일 오전8시 25분부터 KBS-1TV '주부 세상의 중심' 시간에 방영된다. 문의 062-613-2271.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20세기 호남 한문 문집 간명해제' 출간

20세기 호남 지역의 한문학 문집을 집대성한 책이 발간됐다. 전남대 호남한문학회연구소(소장 김대현 전남대 국문과 교수·이하 연구소)는 지난 2005년부터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1천2종의 한문 문집을 조사·연구한 '20세기 호남 한문 문집 간명해제'(사진)를 출간했다고 23일 밝혔다. 연구소는 이번 연구를 통해 그동안 한문학 연구에서 배제돼 온 20세기 한문 문집을

총정리함으로써 근·현대 호남 문화의 원형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확보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해제집에는 문집 1천2종의 서지사항, 간행과정, 주요 내용, 저자의 생몰 연도, 행적 등이 실려 있다.

연구소 관계자는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알려진 한문 문집은 400여종에 불과했으나 각 지역의 문화원, 종친회, 대학 도서관, 고서점 등을 훑은 결과 1천 종이 넘

는 소장 자료를 조사·수집하고 목록을 작성했다"며 "호남 문화를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소는 오는 2010년까지 호남의 간행본 문집에 대한 조사를 지속해 연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한문으로 된 고문집을 소장하고 있는 이들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다. 문의 062-530-3985.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Happy Time movies and cinema listings.

Advertisement for Megabox cinema listings, featuring Harry Potter and other films.

Advertisement for Enter Cinema listings, featuring Die Hard 4 and other films.

Advertisement for Columbus Cinema listings, featuring Die Hard 4 and other films.

Advertisement for Mudeung극장 listings, featuring Die Hard 4 and other films.

Advertisement for Jeil Cinema listings, featuring Harry Potter and other films.